

안전보건 자료정보 통합체계 만들자



안전보건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물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기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모두
비전으로 새겨야 할 가치(value)다. 안전보건기관과 전문가의 수가 많고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 가치가 달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아시아 산업보건학회(ANOHA)

안전보건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물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기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모두 비전으로 새겨야 할 가치(value)다. 안전보건기관과 전문가의 수가 많고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 가치가 달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체계(시스템), 안전보건거버넌스(governance), 전문가 활동 등이 모두 이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보건활동의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요소 중의 하나가 안전보건 자료와 정보(이하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와 통합이다.

안전보건정보 통합 필요성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기업은 집중해야 할 핵심 안전보건사업을 어떤 근거로 선정하는지 궁금하다. 사고와 질병 위험의 특성은 사업장과 노동자로부터 얻은 많은 안전

제언

보건정보 속에 들어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 개별 노동자의 안전보건정보로는 위험수준과 경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많은 안전보건정보를 갖고 있어도 잠재적 위험요인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귀중한 안전보건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산업재해, 중대 재해, 안전보건실태, 감독 결과 등 헤아릴 수 없는 안전보건정보가 모이지만 제대로 통합된 적이 없었다. 1962년부터 누적된 산업재해 보상정보도 마찬가지다.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보상한 정보는 매일 쌓이지만 정보의 유사성에 따라 통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컴퓨터에 풀더가 없거나 부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안전보건정보의 통합 방안

사업장과 노동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은 산업, 공정, 직무, 직업, 고용 형태 등 다양하다. 이들 정보를 표준화하고 분류하고 통합하면 안전보건위험을 상대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 → 용접 공정 → 도장’ 직무를 묶으면 화학물질 노출 위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용접, 도장, 환경미화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직업이나 고용 형태 요인만으로 개략적인 위험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산업이나 공정을 추가로 통합하면 위험 수준 추정치의 정확성은 더 높아진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정보를 통합해서 위험을 추정하는 방법도 같다. 잠재적 위험요인인 ‘건물 → 공정 → 직무’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하면 개략적인 사고와 질병 위험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집중 사업을 정할 수 있다. 직무를 기반으로 매트릭스로 엮은 직무노출메트릭스(Job Exposure Matrix, JEM)가 좋은 사례다.

모든 국가는 표준산업 분류체계(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SIC)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특성에 따른 분류 표준 없이 통계청의 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다. 사업장 등록, 산업재해 분류가 서로 다른 이유다.

동일한 공정의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도 원청과 많은 하청 회사들 간에 서로 산업분류가 다른 경우가 많다. 특정 산업과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와

많은 안전보건정보를 갖고 있어도 잠재적 위험요인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귀중한 안전보건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질병의 위험이 숨어버리는 구조다. 이러한 잠재적 사고 위험분류의 오류를 없애려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안전보건특성에 맞는 표준분류체계를 다시 만들고 모든 안전보건활동에서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추가로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공정과 직무 표준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안전보건활동의 규모와 수준으로 볼 때 가능하다.

통합된 안전보건정보의 활용

통합된 안전보건정보는 사고와 질병의 예방은 물론 보상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방에서는 잠재적 위험 수준이 높은 산업, 공정, 직무 등을 통합해서 분류된 기업을 특정하여 감독 및 기술지원 집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제도에서는 안전보건 통합체계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과거 직업병 보상 노동자가 근무했던 업종, 공정, 유해인자, 노출 기간 등을 통합하면 직무 연관 보상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분명한 보상 대상 질병을 매년 조사하고 심의하는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통합된 보상 자료를 활용해서 질병 보상을 결정함으로써 심의 과정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결론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표준으로 사용하는 안전보건정보 범위와 수준은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가 안전보건활동에서 표준산업(SIC)과 표준직업(standard of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분류체계를 갖고 있다. WHO, ILO에서도 이러한 표준분류를 권장하고 있다. 나라별로 표준산업별, 표준직업별 사망 등 사고, 암 발생, 암 기여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정보의 국가 표준은 미흡하다. 안전보건에서 쓸 수 있는 표준산업은 통합되어 있지 않고, 표준직업이 없기 때문이다. 표준산업별 산업재해 통계도 위험요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안전보건활동 규모와 특성에 근거할 때, 산업, 공정, 직무(직업)는 표준으로 분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통합된 안전보건정보를 잘 활용하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사고나 질병 발생은 막을 수 있다.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안전보건특성에 맞는
표준분류체계를
다시 만들고 모든
안전보건활동에서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